빅데이터의 미래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가 매 순간마다 생산되고 증가하고 있다. 이 데이터들이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들여다보자.

무엇이 데이터를 만드는가?

빅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왜 빅데이터가 중요한가?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관은 미국 6개주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직하는데 2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만 달러

*2012년 3월 기준

정부 지도자들

과학자들

검역관들

협력사들

교육 전문가들

은 데이터가 다음을 밝힐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진다.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반응할것인가

번역 · 각색 김민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디자인** 세일포커스㈜
출처 pewinternet.org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능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명성을 만든다.

직원과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더 잘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결정을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만든다.

염려되는 부분

사생활 침해
는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사람들에게 데이터 수집만큼이나 주요 이슈다.

오늘날 수집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형편없이 조직된, 그래서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고려된다.

빅데이터의 미래는 무엇인가?

53% 가 이 시나리오에 동의했다.

빅데이터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그려질 것이다.

39% 가 이 시나리오에 동의했다.

빅데이터는 오늘날부터 2020년까지 풀어야할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긍정적

2020년까지, 빅데이터의 사용은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것이다.

사용자 혁신은 스스로 분석하는 법을 이끌 수 있다.

현재 예보,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패턴 인식은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한계점들

툴과 데이터 투명도를 위한 오픈 액세스는 사람들의 정보 체크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 그것은 충분한가?

기계보다 인간은 여전히 빅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계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인간이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부정적

빅데이터는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부자들은 빅데이터를 조정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데이터를 가지는 것의 실체와 그것을 분석해 갖는 이득 등 정부와 기업의 동기에 대해 고려했다.